

# 신안군,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 과수 재배 100여 농가 대상 영농부산물 파쇄 교육 미세먼지 발생 줄이고 임대농기계 홍보·활용도 ↑

신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영농철을 맞아 관내 과수 재배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소각으로 인한 산발 발생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은 영농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임대농기계 홍보 및 활용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 참석한 압해읍 백순천씨는

“무화과 전정 후 부산물 처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파쇄기를 활용하여 파쇄한 후 퇴비를 재활용하니 일거양득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파쇄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과수 나무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할 경우 미세먼지도 줄이고 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농가의 일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어



농기계 작업 및 운행이 빈번해지는 만큼 “농기계 사용자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 스티커를 부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목포시,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모집

### 학원·음식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 연중 수시 모집

목포시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다자녀행복카드’ 참여 가맹점을 모집한다.

다자녀행복카드는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도가 지난 2008년부터 농협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사업이다.

참여 대상 가맹점은 학원과 음식점, 이·미용업, 육아용품업, 유통업 등 모든 제조서비스업으로 연중 수시 모집한다.

참여 가맹점은 BC카드 가맹점 수수료 0.2%할인, BC카드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지원, 전라남도 홈페이지 및 업체 현황 게시, 인증스티커 부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및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홈페이지(<http://jnhappy.bccard.com/jnhappy>)에서 확인하거나, 목포시보건소(270-42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행복카드 이용은 출산가정에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신규 발급인원과 지역 가맹점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광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위한 친절교육 실시

### 민원담당공무원 24명 대상 ‘행복한 나, 우리 안의 친절’ 주제



영광군은 지난 26일 별관 2층 회의실에서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민원응대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행복한 나, 우리 안의 친절”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친절·불친절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민원 응대 요령 및 소통 노하우를 중심으로 진행해 실제 민원 응대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효과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앞서 홍석봉 부군수는 “친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형식적인 친절에서 벗어나 민원인을 가족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을 실천해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내 총 4회의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함평군,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2개 마을 4백만원 지원

함평군은 전남도가 실시한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에 나산 월평마을과 해보 대성마을 등 2개 마을이 확정돼 각각 2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산어촌인과 지역 주민의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지난달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 10개 마을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24개 마을에 마을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량을 10개 마을로 줄이고 마을당 사업비를 최대 2천 4백만 원까지 확대해 집중도를 높였다. 선정된 마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나라꽃길 조성, 팽나무공원 조성 등 마을경관 조성과 어르신 장수 사진촬영, 어르신 섬김 음식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융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관계자는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이 하나 되어 활력넘치는 지역사회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산강 고대 마한 세력 거점’ 영암 옥야리 고분군 시굴조사

### 옹관묘 틈새서 고대 수장의 인골 확인 ‘학계 관심’



옹관묘 내부에서 확인된 인골.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군은 영산강 고대 마한문화를 규명하고 사적지정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옥야리 고분군(전남도문화재자료 제140호)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암 옥야리 고분군은 영암군 옥야리 576-4번지 일원에 소재한 4-6세기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마한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다.

고대문화재연구원에서 수행한 이번 시굴조사 결과, 한 봉분 안에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함께 석재를 다듬어 쌓은 석실묘 등이 확인돼 영산강 고대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봉분 내의 무너진 옹관묘 틈새에서는 고대 수장의 인

골이 일부 확인됐다. 그동안 옹관묘에서 인골이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어 학계에서는 영산강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고대 인골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 당시 나이와 성별뿐만 아니라 DNA 분석 등을 통해 고대인의 가족관계, 나아가 고대 한민족의 유전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영양상태와 질병 등 발전된 현대 과학기술로 분석 가능한 다양한 정보가 인골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 한 봉분 안에 구축된 옹관묘와 석실묘의 관계도 인골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면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석실묘 출현 문제, 즉 새로이 등장하는 석실묘의 주인공이 외래인인가 현 지인인가 하는 해묵은 논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빠른 시일내 옥야리 고분군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해 이번에 확인된 옹관묘와 석실묘의 전모를 파악하며 마한문화의 역사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농식품 중국수출 본격 추진

### 중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식품 판로 개척

무안군은 지역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농식품 수출확대 마케팅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협의체인 마케팅로드를 구성하고, 중국에 농식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상품과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중국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판촉행사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4월 2일에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5일부터 9일까지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사업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시장에 우리지역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JHE 글로벌과 100만불 수출협약을 체결하였고,

올해는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생산업체, 수출전문가로 구성된 마케팅로드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의 수출 마케팅로드 운영으로 지역 농식품이 거대 중국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양과 등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가공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기성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